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2017년도 공무국외연수 보고서(일본)

● 국외연수 개요

- 근 거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 국외여행규칙
- 기 간 : 2017. 10. 30. ~ 11. 3.(4박5일)
- 장 소 : 일 본
- 참 석 : 5명(의원3, 직원2)

● 주요 연수내용

- 지방자치 선진의회 및 행정기관 방문을 통한 자치제도 학습
- 방재거점시설 방문 및 체험을 통한 안전의식 고취
- 선진도시기반시설 견학 및 문화·관광자원 체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www.bukgucouncil.daegu.kr)

공무 국외 연수 개요

- 연 수 국 : 일 본
- 연수목적 : 아시아의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 연수를 통해 우리 문화에 적합한 지방자치제도 학습을 통해 자치의식을 강화하고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 시스템을 갖춘 방재거점시설을 방문하여 북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구정정책 연구
- 연수기간 : 2017. 10. 30. ~ 11. 3.(4박5일)
- 보고서 작성자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소 속	직책	성 명	비 고
북구 의회	의 장	하 병 문	
	의 원	김 상 혁	
	의 원	이 성 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설 두 호	
	주 무 관	김 재 영	

목 차

I . 연수개요	3
1. 연수배경	3
2. 연수목적	3
3. 연수기간 및 일정	4
4. 연수인원	5
5. 연수준비	5
II . 연수지 현황	6
1. 일반현황	6
2. 도 코	6
3. 요코하마	8
4. 하코네	9
4. 닛코	10
III . 연 수 내 용	11
1. 선진의회 및 행정기관 방문	11
가. 서동경시의회	11
나. 동경도청 및 의회	12
다. 시사점 및 방문후기	13
2. 방재거점시설 및 방재시스템 견학	17
가.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	17
나. 일상 속 방재시스템	19
다. 시사점 및 방문후기	21
3. 도시경관·문화·관광분야 벤치마킹	22
IV . 연 수 소 감	27
1. 하병문 의장	27
2. 이성재 의원	28
3. 김상혁 의원	29

2017년 복구의회 국외 연수보고서(일본)

I

연수 개요

1. 연수 배경

- 우리 구에 적합한 지방자치제도를 학습하기 위해 아시아의 지방자치 선진국인 일본, 그 중에서 수도 도쿄도 의회 및 도청 등을 견학하며,
-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방재거점시설인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을 방문하여 현지 안전매뉴얼을 학습하고 벤치마킹이 가능한 부분을 연구함으로써 복구민의 안전의식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연수 목적

- 서동경의회 및 동경도청·의회 비교견학을 통하여 선진국의 지방자치제도를 학습하여 자치의식을 강화함.
- 지진·해일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방재시스템을 갖춘 일본의 방재공원 및 일상 속의 방재시스템을 견학 및 체험함으로써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 벤치마킹
- 일본의 도시관리, 교통, 문화관광 등 여러 분야의 선진 시스템과

제도를 견학하고 의원 개개인의 역량 함양을 통해 혁신적인 아이디어 창출 및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연계

3. 연수기간 및 일정

■ 연수기간 : 2017. 10. 30.(월) ~ 11. 3.(금) <4박5일>

■ 연수일정 : 일본(하코네-도쿄-닛코-요코하마-도쿄)

월일(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지	업무수행내용	비고
2017. 10.30. (월)	부 산	나리타 도쿄 하코네	관음사	국외연수 관련 방문지 및 방문기관 현황자료 수집	국외연수 자료수집 출국
2017. 10.31. (화)	하코네	도쿄	유황계곡 도쿄도창의회	천연자원 관광상품화 성공사례 견학 도청사 운영실태 비교견학	현장견학
2017. 11. 1. (수)	도쿄	닛코 도쿄	유네스코문화 유산 화산폭포 서동경시의회	문화유적지 관리사례 견학 현지의회 비교견학	비교견학
2017. 11. 2. (목)	도쿄	-	동경임해광역 방재공원	재난 및 재해시설 방문 및 체험	현장견학
2017. 11. 3. (금)	도쿄	부 산	황 거	문화시설운영 비교견학 및 도시경관조성 관련 현장견학	비교견학

4. 연수인원 : 5명(의원3, 공무원2)

소 속	직 책	성 명	비고
북구의회	의 장	하 병 문	
북구의회	의 원	김 상 혁	
북구의회	의 원	이 성 재	
의회사무국	의정팀장	설 두 호	
의회사무국	주 무 관	김 재 영	

5. 연수준비

① 1차 워크숍 : 2017. 10. 11.(수) 14:00

■ 일본 선진의회 및 행정기관 관련 자료 조사

■ 현지 방재거점시설 및 재난시스템 연구 및 토론

① 2차 워크숍 : 2017. 10. 20.(금) 16:00

■ 일본의 지방자치제도 학습 및 쟁점사항 토론

■ 중요 연수자료 숙지 및 국외 연수 유의사항 최종점검

II

연수지 현황

1. 일반현황

- 국명 : 일본(Japan)
- 면적 : 377,915km²(한반도1.7배)
- 인구 : 약 1억2,756만명(세계10위)
- 수도 : 東京(Tokyo)
- GDP : 4조 7,698억\$ 세계3위
(2014 IMF 기준)
- 행정구역 : 1都1道2府43縣(47개)
- 기후 : 온대다우기후
- 인종 및 언어 : 일본족(98%),일본어
- 종교 : 神道, 불교, 기독교



2. 도 교



- 도쿄는 황궁을 중심으로 한 23개 구의 구부(區部), 그 서쪽의 3다마지구 및 이즈제도·오가사와라제도를 포함하는 3개 지역으로 나뉜다. 이 3개 지역을 합쳐 도쿄도 라고 하며, 행정상 23특별구·26시·5정·8촌으로 나뉜다. 도청소재지는 신주쿠구에 있다. 일반적으로 도쿄라고 할 때에는 23구를 말한다.
- 인구밀도는 1km²당 5,293명으로 최저인 홋카이도(73명)의 70배를 넘으며 1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주하는 일본의 수도이며 일본의 정치 및 경제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세계의 경제, 문화의 중심지이다.
- 17세기 초에 장군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곳에 막부를 연 이래, 거성인 "에도 성"을 중심으로 성을 에워싸듯이 주변에 시민들의 거주지가 전개되어 발전해 왔다. 1923년의 관동 대지진, 제2차 세계대전 등에 의해 많은 시가지가 폐허가 되었으나 경제 부흥을 이룩해 지금에 이르고 있으며,
- 2020년 도쿄올림픽을 유치하여 2011년 후쿠시마 대지진 이후 침체된 국내경기를 부흥시키고 국민들의 사기진작 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1990년대 부동산 버블 붕괴로 침체되었던 건설 경기가 되살아나 올림픽 선수촌 건설 및 대규모 도심 재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다.

3. 요코하마



■ 일본 혼슈 가나가와현에 있는 도시로 1859년의 미·일 수호 통상조약에 따라 개항이 되면서 도시화의 기초가 성립되고, 1872년 도쿄와의 사이에 철도가 부설됨으로써 일본 최대의 항만 도시로 발전해 왔다.

■ 도쿄 도시권의 위성 도시로서의 성격도 갖고 있으며, 1956년에 일본에서 처음으로 정령지정도시(광역시와 유사)가 되었고, 1985년에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 일본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다. 도쿄와 인접해 신칸센을 비롯한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가 통하고 있어서 교통은 매우 편리하며, 시내에는 1972년에 지하철 1호선이 개통되었다.

1989년에는 시 설립 100주년과 개항 130주년을 기념해 요코하마 박람회가 개최되었고 1990년부터 도심부 정비 계획의 일환으로 요코하마역 주변 지구와 간나이 지구를 잇는 미나토미라이21 지구의 정비 등으로 도쿄 시민들이 가장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4. 하코네



일본 간토(關東)지방 가나가와 현에 있는 국제적인 관광·휴양 도시로 하코네 산지 중앙부에 있으며 서쪽에는 아시노호가 있다. 헤이안시대부터 발달해 온 도시로 후지 산 동쪽 기슭에 해당된다. 후지 산의 대폭발로 이시가라길이 덮여져 하코네 길이 열려 관광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다. 지명은 '상자 모양의

산봉우리'라는 뜻에서 나왔다. 일본에서 손꼽히는 온천 휴양지로 후지하코네이즈국립 공원의 중심 지역이다.

5. 닛코



- 1617년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위패를 둔 도쇼궁이 건조된 뒤 그 문전도시로 발전하였다. 도쇼궁은 당시 미술공예 기술을 결집하여 건조된 사치스러운 건물로서 근세 초기의 일본 건축을 대표한다. 그 밖에 후타라산신사, 율왕사 등의 오래된 건조물과 주젠지호, 계곤 폭포 등 경승지가 있어 관광객이 몰린다. 산업으로는 구리제련 · 알루미늄 공장이 있고, 철기 · 목공 제품 등 재래공업도 활발하다.

1. 선진의회 및 행정기관 방문

① 서동경시의회



인 구 : 198,788명

면 적 : 15.85km²

의회 의원수 : 28명

주요특징

- 도쿄도 다마지역의 북동부에 있고 무사시노대지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쪽으로 사이타마현과 접한다.

니시토쿄시는 2001년 1월 21일 다나시시와 호야시가 통합하여 탄생하였다. 세이부이케부쿠로선, 세이부신주쿠선등의 철도가 지난다. 이 지역 교육의 중심지로는 무사시노대학, 와세다대학, 히가시후시미캠퍼스 등이 있다. 명소로는 다나시신사 등이 있으며, 해마다 니시토쿄시민마쓰리 등의 축제가 열린다.

② 동경도청 및 의회



인 구 : 13,613,660명

주요특징

- 일본 지방자치법 하에서 도쿄는 도(都)로 지정되어있다. 도쿄 도는 1943년까지 도쿄 시를 이루었던 23개의 특별구를 포함하며 이들은 자치권을 가지고 각자의 구장과 의회를 가지고 있어 사실상 도시의 지위를 가진다. 도쿄 도는 또한 각자의 지역 정부를 가진 26개의 시와 5개의 정, 8개의 촌을 포함한다. 도쿄 도 정부는 공개적으로 선출된 도지사 와 도 의회에 의해 운영된다. 도쿄 도청은 신주쿠 상징하는 건물로, 남쪽과 북쪽 타워에 전망대가 있어 항상 많은 관광객으로 붐비는 도쿄의 명소이다.

③ 시사점 및 방문후기

■ 일본 지방의회

일본의 지방의회는 우리와 같이 주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자치체의 의결기관으로 중앙의 국회에 해당하는 기관이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도도부현·시정촌·특별구의 의회는 공통의 제도를 갖는 지방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조례의 제정 및 폐지, 예산의 결정, 계약의 체결, 결산의 인정, 자치체 집행업무에 대한 검사·검열 및 감사 청구권 등 광범위하다. 국회와 같이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자치체의 가장 중요한 기관이지만, 실제로는 자치단체장이 제안하는 의안을 심의하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서 의회 본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지방의회의 기능으로는, 우선 지역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정치과정에 수렴시키고, 이러한 쟁점들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자치단체장과의 경쟁관계를 통하여 자치체의 공적의사를 형성해나가는 것이다.

■ 일본 지방자치제의 기능

전후의 일본 지방자치는 지역주민의 정치사회화와 시민민주

주의의 발달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전후 GHQ의 개혁정책에 의하여 새롭게 시작된 지방자치는 실제로 지역 주민에 의한 자치행정을 가능케 하였고, 여러 가지 모순과 한계성의 노출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정치사회화에 커다란 공헌을 하였다. 이러한 정치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일본 국민들은 1960년대에 들어서면,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는 시민운동을 주도하여 정부의 성장위주·개발위주의 정책에 제동을 걸고, 삶의 질이 우선되는 복지정책으로 국가정책전환을 요청하는 단계로까지 성장하였다.

물론 이러한 지방의 도전에 의해 일본의 성장제일주의 국가전략에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국민복지나 삶의 질과 같은 개념이 일본 정치의 중요한 정책 목표로 포함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다. 또한 도시문제나 공해문제 등 그때까지 관심밖에 있었던 문제들을 제기함으로써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해 행정을 근본적으로 재검토케 하였고, 이 과정에서의 주민의 정치참여는 차후 불합리한 정부정책에 대한 주민통제의 선례가 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지방자치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제화라는 국가적 과제를 담당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역 균형발전의 주역은 지방정부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지방자치 단체장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자치체 운영방식의 도입을 촉

진케 하였다. 따라서 지방자치체는 국가정책을 선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에 맞는 정책 및 사업을 전개하였다. 한편 지방을 거점으로 하는 국제화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즉 과거에는 지방정부가 외국과 교류나 접촉할 때는 국가를 경유하여 하는 것이 상례였으나 최근에는 지방정부가 주체적으로 외국의 지방정부와 직접 교류를 한다. 이러한 구상을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도시는 홋카이도, 니가타, 규슈 등인데, 이들 도시는 주변의 한국이나 중국, 러시아의 가까운 도시와 자매관계를 맺어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하는 등 활발한 교류를 하고 있다.

일본 지방자치제의 과제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는 일본 시민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자치가 제도적으로 얼마나 민주적이고 분권적인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논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하여 사회의 각 부문으로부터 끊임없이 자치권의 확대, 나아가 광범위한 분야에서의 중앙정부의 규제완화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분권화와 규제완화 요구는 1990년대 들어 선거제도개혁 등과 같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일본 정부가 풀어야 할 정치적

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또 하나의 과제는 중앙정부에 과다하게 집중되어 있는 조세권의 지방이양 문제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의 할당비율은 국세가 65%, 지방세가 35%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용되는 최종 소비형태를 보면, 중앙정부가 35%를, 지방자치체가 65%를 사용하고 있다. 즉 전체 조세의 30% 정도는 중앙정부가 국세로 거둬들인 후 이것을 넓은 의미의 보조금으로 지방자치체에 지원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지방자치체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이루어지는데, 이 조세권의 지방이양 문제가 일본 지방자치가 풀어야 할 또 하나의 당면 과제인 것이다.

2. 방재거점시설 및 방재시스템 견학

①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

방재공원 입구



방재공원 전경



재해현지대책 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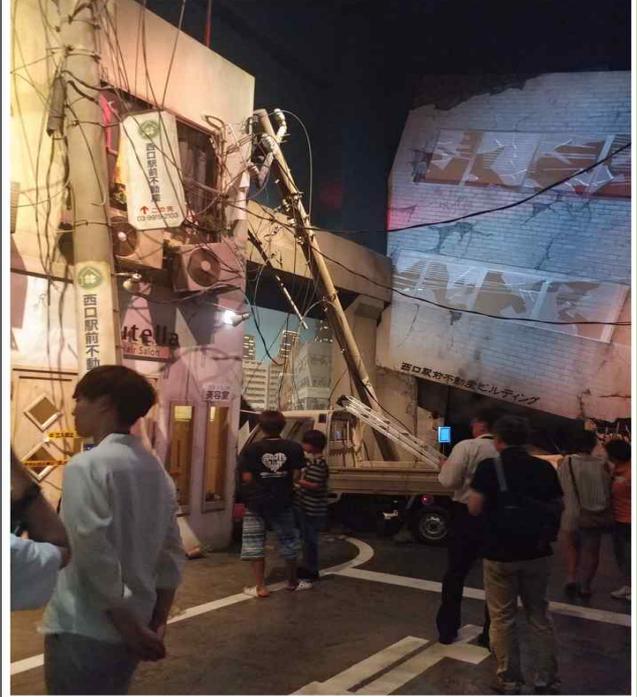
재난발생시 응용능력 교육



재해대비 비상식량



지진발생 체험현장



■ 주요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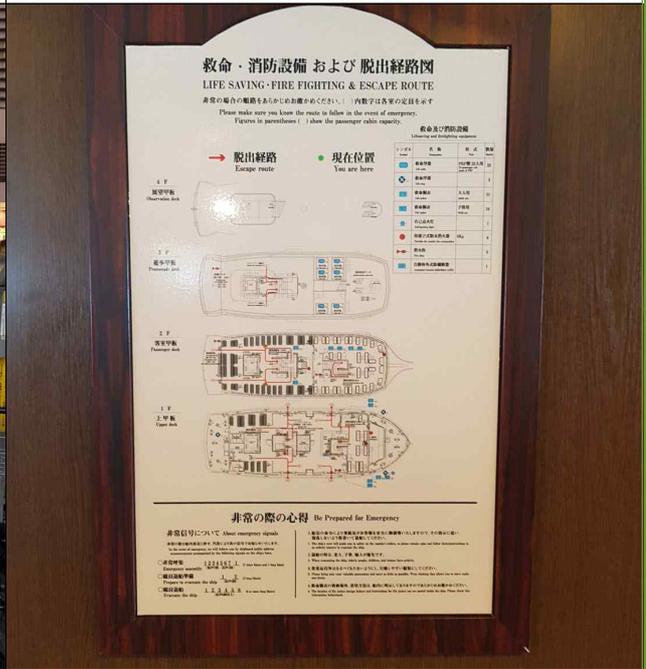
-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은 동경에 직하형 지진이 발생할 경우, 재해정보 총괄과 재해 응급대책을 조정하는 "재해 현지대책 본부" 기능을 하도록 조성된 곳이다. 한마디로 수도 동경의 "재해 컨트롤타워"이며 재해발생시 골든타임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고 응급조치가 취해지는지 일본 담당자로 부터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

② 일상 속 방재시스템

도심 속 대피장소안내도



유람선 대피도



구명조끼 착용법



구명조끼 보관함



서동경시 방재 안내책자

가설건축물 이중천장구조

西東京市
Nishitokyo City
西東京市 니시 도쿄시

防災
ガイド&マップ
Disaster-prevention directions & map
防災指南及地図 방재 안내 및 지도

防災マップブロック図
防災マップは、下面に示すように8分割されています。分割地図をご利用いただき、地域防災活動にお役立てください。

総合対策	1
- 非常時に備えるために	1
- 避難の情報は3種類	2
- 正確な情報収集	2
地震対策	3
- 地震発生！そのとさどうする？	3
- 緊急地震速報	3
- 避難の経路	4
- 帰宅困難者対策	4
- 高家と階1等の状況（概要）	5
- 大地震に備えたあなたの家の耐震診断	5
- 地震に備えておくべきこと	6
- 大地震に備えたあなたの家の耐震改修	6
- 地震の危険度	7
火災対策	8
- 火災発生！さあどうしよう？	8
- 火災を防ぐ6つのポイント	8
風水害対策	9
- 風水害に備えておくべきこと	9
- 都市型水害（集中豪雨）	10
- 竜巻から身を守る	10
- 風水害後の点検	10
市と地域の防災対策	11
- 災害時要援護者を守る	11
- 医療救護所一覧	11
- 市の防災対策	11
- 西東京市地域防災計画の概要	12
外国人向け情報	13
- 災害の主な情報（英語）	13-14
- 災害の主な情報（中国語）	13-14
- 災害の主な情報（韓国語）	13-14
西東京市防災マップ	15
- 北野（1-6丁目）下層部（1-5丁目）	15-16
- 東野（1-9丁目）西野（1-4丁目）	17-18
- 東野（1-4丁目）中野（2丁目）	19-20
- 中野（1-2丁目）西野（1-5丁目）	19-20
- 中野（1-3丁目）	19-20
- 中野（1-3丁目）東野（1-6丁目）	21-22
- 東野（1-6丁目）東野（1丁目）	21-22
- 東野（1丁目）西野（1-7丁目）	23-24
- 東野（1丁目）西野（1-7丁目）	23-24
- 東野（1-6丁目）西野（7丁目）	25-26
- 西野（1-5丁目）	25-26
- 東野（1-6丁目）西野（1-6丁目）	27-28
- 東野（1-3丁目）西野（1丁目）西野（1丁目）	27-28
- 東野（1-6丁目）西野（1丁目）	29-30
- 西野（1-2丁目）西野（1丁目）西野（1丁目）	29-30



주요특징

지진과 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이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철저한 대피책 마련 때문이다. 시내, 유람선 곳곳에는 대피소안내문을 설치되어 있으며, 서동경의회 방문시 청사 곳곳에 시민들이 가져가서 볼 수 있게 20페이지 가량의 방재 안내 책자를 손쉽게 구할 수 있었다. 자전거를 보관하는 가설 건축물 조차도 이중구조로 설치하여 지진에 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

③ 시사점 및 방문후기

 동경임해광역방재공원의 경우 재해 예방과 지진, 화재, 강풍 등 재해 발생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훈련과 재해 예방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입관은 누구에게나 무료로 개방되어 있다. 시민과 어린이의 체험 교육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시설을 보니 우리에게도 비슷한 규모의 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일본이라는 나라는 자신들의 처한 어려움에 대해 사전 대비하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고 생각한다. 지진과 재난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일본이지만 큰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철저한 대비책 마련 때문이다. 어릴때부터 습관화된 안전대비책은 국가 차원에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국민이면 누구나 언제든지 훈련을 경험할 수 있는 시스템에 놀라울 따름이다.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에 대한 반성이 앞섰다. 특히 2016년 경주, 울산 등 지진이 발생했을 당시 일상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행동이 우리는 어떠한가에 대한 깊은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재난에 대비한 매뉴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 재난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이 소중함을 깨달았다.

3. 도시경관·문화·관광분야 벤치마킹

① 오오산바시 국제선터미널 잔디공원



■ 터미널 상부는 굴곡이 있는 범선 모양을 모티브로 하여 자연의 지표면처럼 만들어 건축물을 역동적으로 보이게 하였으며, 터미널 지붕을 길이 430m, 폭 70m의 나무 데크와 잔디공원으로 조성하고 얇은 구릉의 언덕과 경사로를 만들었다. 또한 내부의 여객선 대기실, 식당, 상점들도 일체감을 주기 위해 모두 지붕의 나무 데크와 동일한 재질로 마감 처리하였다.

■ 요코하마는 전통 건축물이 별로 없는 도시로, 잘 지은 인공건축물 하나가 어떻게 도시의 이미지를 바꾸고 유명하게 해주는지를 증명해 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 멋진 바다의 풍광과 요코하마의 야경을 볼 수 있어 많은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② 아카렌가 창고



- 1920년대의 조적식 건축으로 유명한 외관을 유지한 채 2002년 시민공청회를 통해 내부만 새롭게 단장하여 요코하마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는 등 도시미관 창출 및 문화공간 형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 1호 창고에는 각종 문화 이벤트 홀과 다목적 스페이스가 있고, 2호 창고에는 라이브를 즐길 수 있는 생맥주 레스토랑을 비롯하여, 기념품 판매점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 하고 있다.
- 역사적 문화유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단순한 보전 차원을 넘어 상업적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많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종합적인 도시계획에 맞춰 역사적 건축물의 재개발을 추진한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생각되어졌다.

3 오다이바 내 건담 테마공원 및 모터쇼



- TV 애니메이션 기동전사 건담 시리즈의 방송 30주년을 맞아 실제 크기로 건담 모형을 만들어 건담을 사랑하는 많은 이들이 찾아오게 하고, 하루 5~6차례 건담애니메이션 상영과 건담쇼, 야간에는 화려한 조명을 밝혀 관광객들의 시선을 불러 모으고 있었다.
- 오다이바의 관광 명소가 실제 크기의 건담 모형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오다이바는 후지TV 스튜디오, 레인보우 브릿지, 도쿄 빅 사이트, 모터쇼 등의 명소와 다양한 쇼핑몰이 자리해 관광객들에게 인기가 높은 지역이기도 했지만 이렇게 잘 알려진 관광명소에 애니메이션 캐릭터가 자리해 인기를 얻고 있다는 것은 나름의 상징성을 지니기도 한다.
- 관광산업이 활성화 된 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은 자국이 자랑하는 산업군인 만화와 게임을 콘텐츠로 활용하여 만화나 게임 속에서 보던 인물을 만나고 체험하며 음식을 맛보는 관광 콘텐츠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4 하코네



- 가나가와현 남서부 아시가라시모군에 위치
- 오와쿠다니(大涌谷) 계곡은 약 3,000년전 수증기가 폭발하여 만들어진 분화구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천연 수증기와 유황 냄새가 코끝을 자극하는데, 이곳에서는 사람이 살 수가 없다고 하여 지고쿠(지옥)이라 불린다. 이 온천수로 삶은 달걀을 먹으면 장수한다고 하여 외국인을 비롯하여 일본인에게도 무한 사랑을 받고 있다.
- 아시노코 유람선은 하코네에서 온천과 더불어 하코네 관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바다같은 큰 호수에서 상쾌한 산들바람을 맞으면 30분간 즐거운 유람관광을 즐길 수가 있다.

5 자전거·이륜차 주차장



- 일본은 지하철 중심의 교통 환경과 비싼 전철료 등으로 인해 자전거이용이 보편화되어 있으며 일반 가정에는 보통 2대 이상의 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일반차량과 같이 자전거와 이륜차에 주차스티커를 발부하여 관리하고 있다.
- 그러나 노상 자전거 불법주차와 방치 자전거 문제가 대두되어 2004년부터 자전거종합대책을 시행해 자전거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무인 및 기계식 등 유료자전거주차장을 보편화시켰다.

1. 하병문 복구의회 의장

4박 5일의 짧은 기간이지만 뜻깊은 일본 연수를 다녀왔다. 사람마다 연수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 한국을 벗어나 타국을 견학하는 것 자체가 의원들의 시각을 넓혀줄 수 있다. 일본이라는 나라를 생각하면 경제대국으로서 한국보다는 모든 정치체제가 잘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다. 하지만 정치는 결코 정치의 범위를 벗어날 수가 없다고 느꼈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년이라는 긴 안목속에서 정책이 입안되고 구체화되고 있었다. 당장에 필요한 정책이 아니라 100년 후 후손들이 살아갈 환경을 철저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에 놀라울 따름이다. 한국의 상황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는 영역이다.

또한 국민들의 의견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다. 정책입안의 중심이 공무원과 정치인이 아니라 주민들 속에 발현된다는 것이다. 지역의 어떤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에 의해 결정되지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국과 비슷한 생활습관을 가진 일본. 하지만 형식을 비슷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달랐다. 친절과 검소, 근면함은 우리가 배워야 할 덕목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일본에서 느낀 것에 대해 우리사회에 어떻게 접목시킬 것인가 고민을 했지만 답답함이 앞선다. 한국

사회는 일본과는 또 다른 토대이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해외 연수가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2. 이성재 의원

이번 일본 연수는 짧은 일정 속에서도 메모하며 뭔가 얻어가는 가장 유익한 연수였다. 일본에 대한 나쁜 감정이 주로 많았는데 나름 살아가는 방식이 우리와 흡사함을 느꼈다. 생활문화는 비슷하면서도 일본은 소박하고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일본을 우리는 경제대국으로 알고 있는데 눈으로는 잘 느낄 수가 없었다. 연수기간 내내 돌아다녀도 경제대국의 모습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았다. 보여주기 위한, 과시욕에 호화로움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과는 달리 부의 정도를 전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검소하게 살아오고 있음을 알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도 일본국민들의 높은 시민의식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가 있어도 국민들이 지키지 않으면 그만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렇지 않았다. 법과제도가 곧바로 실천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그 지역에 걸맞는 환경과 조건을 최대한 이용하면서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맞닿는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복구에서도 현실적인 문제에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위적인 것이 아니라 구민의 입장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에 중심을 두고 의정활동을 펼쳐야 한다고 다짐했다.

3. 김상혁 의원

지난 10월30일부터 5일까지 4박5일간 일본연수를 다녀왔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선진지를 견학하는 것이기에 꼼꼼히 살피려 애썼다.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깨끗한 이미지를 느끼며 실용성과 합리성이 녹아든 일본의 면모를 볼 수 있었다. 동선이 잘 이뤄진 자전거도로와 깨끗한 거리를 일본인의 질서의식을 느낄 수 있었다.

정지선을 정확히 지키며 정차 중 시동을 끄는 버스, 전봇대를 이용한 신호등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은 결코 스쳐볼 수 없는 일본인의 사람에 대한 배려가 얼마나 크고 합리적인지 알 수 있었다.

시내 어디든 연결된 교통체계, 도로망, 예를들면 시내 중심가에 서도 외곽 고속도로로 직접 연결되는 도로연결 이종고가도로 건설로 교통소통에 신경쓰고 있었다. 경차가 많은 일본인의 검소함과 경차에 대한 세제혜택, 대중교통 체계가 잘 이뤄진 일본은 불법 주·정차와 교통정체가 일상인 우리와 정말 비교되는 곳이었다.

그리고 이번 연수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한 부분은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책이었다. 2016년 경주, 울산 등 곳곳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한국도 이제는 지진의 무풍지대라고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방재 대책 노하우를 벤치마킹하기 좋은 나라가 일본이라고 생각했다. 일본은 지진발생에 대비하여 건물의 건축양식부터 내진과 방진, 안전도와 체계적인 규정, 사전 예비 방송과 지원 등의 체계적인 방재시스템을 갖추었다. 이에 비해 우리의 현실은 자연재해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되어 있고, 지금부터라도 자연재해로부터 국민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인 계획과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짧은 연수에 많은 것을 깊이 얻어내긴 어려웠으나 행정에 있어서
섬세한 배려와 합리성, 장기적 안목 등 선진의식 일본을 느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